

김제시립도서관 보도 자료 -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

<div data-bbox="316 347 628 851"> <p>전북도민일보 2023년 4월 19일 수요일</p> <p>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김제시, 답방·강연 등 추진</p> <p>김제시가 5월 4일부터 '근대 실학과 철학, 예술의 만남(석정 이정직에 빠지다)'을 주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한다.</p> <p>이번 사업은 김제시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'2023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'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.</p> <p>'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'사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인문학 감의와 탐방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근대 사회에 큰 획을 그은 서양 학문의 최초 도입자로 인정되고 있는 김제의 인물인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일화, 그의 제자들이 전라북도 문화와 예술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.</p> <p>이번 사업에는 중국문화 학자인 송행근 교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를 연구한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를 비롯한 철학, 문예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강사진들과 11회차에 걸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.</p> <p>특히, 석정 이정직 선생의 생가인 백산의 백산면 요교마을과 감암 서예관 등의 2회에 걸친 답방과 시가 문학 공연이 곁들여져 지역의 인물을 통해 인문학의 소양을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</p> <p>수강생 모집은 5월 3일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, 신청 및 자세한 강의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(https://gil.gimje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문의는 시립도서관(093-540-4135)으로 하면 된다.</p> <p>김제=조명경 기자</p> </div>	<div data-bbox="756 398 1235 882"> <p>전북중일보 2023년 4월 19일 수요일</p> <p>김제시, 길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'2023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'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.</p> <p>이로 인해 다음 달 4일부터 '근대 실학과 철학, 예술의 만남(석정 이정직에 빠지다)'을 주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한다.</p> <p>'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'사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인문학 감의와 탐방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.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근대 사회에 큰 획을 그은 서양 학문의 최초 도입자로 인정되고 있는 김제의 인물인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일화, 그의 제자들이 전라북도 문화와 예술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.</p> <p>중국문화 학자인 송행근 교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를 연구한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를 비롯한 철학, 문예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강사진들과 11회차에 걸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.</p> <p>특히, 석정 이정직 선생의 생가인 백산의 요교마을, 감암 서예관 등의 2회의 답방과 시가 문학 공연이 곁들여져 지역의 인물을 통해 인문학의 소양을 쌓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.</p> <p>수강생 모집은 5월 3일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.</p> </div>
<div data-bbox="331 913 1107 1449"> <p>전민일보 2023년 4월 19일 수요일</p> <p>김제시립도서관, '도서관 길위의 인문학' 공모 선정</p> <p>김제시립도서관(관장 소연숙)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,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'2023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'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.</p> <p>이로 인해 다음 달 4일부터 '근대 실학과 철학, 예술의 만남(석정 이정직에 빠지다)'을 주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한다.</p> <p>'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'사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인문학 감의와 탐방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.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근대 사회에 큰 획을 그은 서양 학문의 최초 도입자로 인정되고 있는 김제의 인물인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일화, 그의 제자들이 전라북도 문화와 예술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.</p> <p>중국문화 학자인 송행근 교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를 연구한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를 비롯한 철학, 문예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강사진들과 11회차에 걸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.</p> <p>석정 이정직 선생의 생가인 백산의 요교마을, 감암 서예관 등의 2회 탐방과 시가 문학 공연이 곁들여져 지역의 인물을 통해 인문학의 소양을 쌓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.</p> <p>수강생 모집은 5월 3일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.</p> <p>신청 및 자세한 강의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(https://gil.gimje.go.kr)와 시립도서관(540-4135)에 문의하면 된다.</p> <p>김제=임재영기자</p> </div>	
<div data-bbox="261 1509 549 1868"> <p>전북타임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</p> <p>'석정 이정직에 빠지다'</p> <p>김제시립도서관, '길 위의 인문학' 사업 운영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,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'2023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'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. 다음 달 4일부터 '근대 실학과 철학, 예술의 만남(석정 이정직에 빠지다)'을 주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한다.</p> <p>'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'사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인문학 감의와 탐방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.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근대 사회에 큰 획을 그은 서양 학문의 최초 도입자로 인정되고 있는 김제의 인물인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일화, 그의 제자들이 전라북도 문화와 예술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.</p> <p>중국문화 학자인 송행근 교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를 연구한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를 비롯한 철학, 문예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강사진들과 11회차에 걸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.</p> <p>특히, 석정 이정직 선생의 생가인 백산의 요교마을, 감암 서예관 등의 2회의 답방과 시가 문학 공연이 곁들여져 지역의 인물을 통해 인문학의 소양을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</p> <p>수강생 모집은 5월 3일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.</p> <p>김제=김영대 기자</p> </div>	<div data-bbox="644 1487 1091 1935"> <p>새한금일보 2023년 4월 19일 수요일</p> <p>김제,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'2023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'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.</p> <p>이로 인해 다음 달 4일부터 '근대 실학과 철학, 예술의 만남(석정 이정직에 빠지다)'을 주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한다.</p> <p>'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'사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에게 그 지역의 역사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인문학 감의와 탐방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.</p> <p>김제시립도서관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근대 사회에 큰 획을 그은 서양 학문의 최초 도입자로 인정되고 있는 김제의 인물인 석정 이정직의 생애와 일화, 그의 제자들이 전라북도 문화와 예술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.</p> <p>수강생 모집은 5월 3일까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.</p> <p>채유경 기자</p> </div>

